

#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, 안전관리 미흡한 곳 많아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4. 12. 5.)

 한국소비자원, 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조사 결과, 일부 바닥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, 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안전관리 필요하다고 밝혔다.

- 어린이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매년 1,00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에 한국소비자원(원장 윤수현)이 서울, 경기도에 소재한 사용승인 25년 차 이상노후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32개소를 조사한 결과, 많은 놀이터가 놀이기구의 부식, 파손, 칠 벗겨짐, 바닥재 손상 등 관리상태가 미흡했고, 일부 고무 바닥재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,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관리주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파손된 놀이기구 등의 신속한 보수와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.
  - 조사대상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90.6%, 안전관리 미흡
    - 놀이기구의 철재 골격이 부식되거나 계단, 안장 등이 파손된 곳이 21개소(65.6%), 손잡이·난간 등 놀이기구의 칠이 심하게 벗겨진 곳이 20개소(62.5%)였으며, 고무 바닥재가 경화·손상돼 고무칩이 노출되거나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곳이 19개소(59.4%)였다.
  -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필요
    - 어린이놀이터의 고무바닥재 또는 포설 도포 바닥재는 「환경보건법」에서 규정한 '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(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)'에 따라 중금속 4종(총 함량 1,000mg/kg 이하), 프탈레이트 7종(총 함량 0.1% 이하) 기준 등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.
    - 7개소의 고무 바닥재에 대해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,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했으나, 한국산업표준(KS) 등을 준용할 경우, 6개소의 고무 바닥재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\*(PAHs), 3개소는 납\*의 검출량이 준용 품질기준(PAHs 10mg/kg 이하, 납 90mg/kg 이하)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\*다환방향족탄화수소와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발암물질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놀이터 바닥재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, 어린이가 놀이 과정에서 노출될 우려가 있다.